

필요광장

총장 직선제와 민주주의



김 하 연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부산대학 국문과 고현철 교수의 자살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경고를 던지는 사건이라 여겨진다.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총장 직선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본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론 창출간에 지식과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애절함에 대해 처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 목숨과 총장 직선제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에는 노골적으로, 사

립대에는 간접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강요해 왔다.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가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총장을 선출한 경북대나 공주대의 경우에는 총장을 1년 넘게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는 허울이고 속내는 자신들의 입맛대로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직선제를 없애 버려려고 하는지, 이들에 대해 교수들은 극단적 거부를 표출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모든 직선제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이 쟁취한 민주적 권위이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최소 정의적 관점에서나마 획득한 것이다. 즉 보통선거권, 주기적인 선거,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정부의 구성 등 민주적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절차적 최소 요건을 갖춘 민주적 정치체제를 국민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다. 대통령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부터 총장 직선제까지 모두 이 맥락에 놓여 있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명분은 금권 혼탁 선거, 파벌 조장, 교육 피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선거에서 더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의 명분은 따른다면 궁극적으로 대통령선거도 폐지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대학은 다양하고 복잡한 학문공동체이다. 교수·학생·교직원들이 모여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학생들은 미래에 활용할 전공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개인과 공동체, 삶과 죽음, 연애와 사랑 등과 같은 향후 자신의 행로에 관해 교수나 선배들과 혹은 도서관에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곳이다. 권리와 의무, 책임·배려·관계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요소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실험 공간이자, 앞으로 살아갈 기본 원칙들을 마련하는 유예된 시간이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의 논리와 경쟁의 구조에 묶여 버리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학습 과정은 매우 중요하

다. 총장 직선제도 이러한 대학민주화의 한 부분이다. 학문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행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구상이고, 대학을 성과주의와 이윤 추구의 논리가 관통하도록 해서 기업의 하부조직이자 취업 학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듯하다. 모 기업의 총수가 대학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향해 “목을 길게 내밀어라, 바로 쳐 주마”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기업의 논리가 대학교육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오려려 현실에서는, 세계 유수의 기업과 국내의 많은 기업의 CEO들이 ‘인간의 학문’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와 성장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벌써 인식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독재와 민주에서 어느 체제가 우월한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침착하고 차분하다. 민주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재판연구원, 그 출발 선상에서



김 대 현
광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15년 4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하늘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평평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한결같이 꿈꾸던 곳에서 직무를 시작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개월 남짓 재판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이 재판연구원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친구에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재판연구원의 직무를 설

명하고, 재판연구원으로서 바라본 법원의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재판연구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는데, 재판연구원을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재판부에 배당되는 새로운 사건을 검토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법관의 1인당 한 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579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양질의 판결을 위하여 재판업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새로 창설한 직역이 법관의 재판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판연구원입니다.

사건의 양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의 경우 판결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자료를 찾고 검토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전에 미리 이러한 과정을 실행하고 정리하는 연구원이 있다면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때는 심정으로 지내온 지난 4개월 동안의 법원생활은 저에게 많은 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법원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열정 어린 노력이 가득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밤 11시 전에 재판부가 모두 퇴근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드물며, 주말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타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법원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재판연구원이 된 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보통 사실관계를 확정된 후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지만,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실관계는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원고와 피고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인정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이 쉴 틈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신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판은 많은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와 법원 직원, 나아가 주요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호사와 당사자까지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협력의 과정에서 저도 재판연구원으로서 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 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저비용·고효율 ‘명품철’로



문 범 수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9년 개봉한 데이빗 핀치 감독, 브레드 피트 주연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는 70세 노인으로 태어나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괴이한 운명을 타고난 한 남자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벤자민 버튼’이란 인물을 통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 인물이 시간적 흐름을 역행해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

문득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 소중할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해 올 때면, 6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영화의 여운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한다.

축박한 시간과 수많은 이해가 충돌할 때 대다수 사람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시간이 훑긴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정책을 서둘러 결정함으로써 중대한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그렇다면 문득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시간을 갖고 고민하며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영화 속 주인공의 대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마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할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건설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도시철도 2호선은 2조원 상당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투자되는 공공재(公共財)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는 명품 도시 철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건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의 역사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

난 1994년 3월 최초로 강화동에서 효천역(13.7km)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답보상태에 있다가 2002년 10월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해 내부순환(27.4km)으로 변경했고, 2005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가 제외된 22.1km로 확정됐다.

6년여가 지난 2011년 12월 첨단·수완 등 신규역지의 집중 개발에 따른 다핵분산형 도시여건 반영 및 1호선과 연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총연장 41.7km의 확대순환형으로 변경됐다. 또한 2013년 12월 지상고가 방식은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진동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가 많다는 여론에 밀려 일반 지하철도보다 예산이 덜 투입되는 저심도 건설방식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타당성 전면 재검토, 푸른길 공원 우회방식 모색, 전문가 TF팀의 급행열차 도입 제안 등 다양한 의견 총괄을 위한 해법 마련이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푸른길 훼손 최소화, 늘어난 사업비 확보 대책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변경돼 온 정책방향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일관성·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질책들이 쏟아지면서 그간 묵묵히 일해 온 동료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명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전문가들의 심층 조인과 다양한 그룹의 의견 검토, 무엇보다 다양한 그룹의 의견 검토, 무엇보다 다양한 그룹의 의견 검토를 위한 더 많은 고민과 분석을 위해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화 속 벤자민 버튼이 딸에게 남긴 일기장의 “이게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강인함을 갖기 바란다”라는 조언처럼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보존하는 것은 150만 시민과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조금 늦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금 이 순간이,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기도 한 광주 도시철도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리라 생각한다.

社 說

현대차의 ‘통 큰 투자’ 청년실업자들에 단비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년부터 광주 청년들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 큰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일자리에 목마른 지역 청년실업자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차 그룹이 최근 발표한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 6000명을 채용하고, 1만 2000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대차의 연 평균 채용 계획 1만2000명은 올해 채용 예정인 9500명에 비해 25%나 늘어난 규모다. 또 2020년까지는 5년간 총 6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240억 원을 투입해 5400명을 대상으로 1인 1인 사업을 지원하는 ‘1인 1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이번 투자 결정은 이차차 분야와 소셜 벤처 창업 등 청년 창업을 돕게 된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연간 100명씩 청년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한 현대차 그룹의 ‘통 큰 투자’는 지역의 인재들과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속 천덕꾸러기 비둘기 퇴치 대책 없나

비둘기가 도심 속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닭둘기’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비둘기는 곳곳에 배설물을 쏟아 내으며 주민 피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도심에 숲이 우거진 데다 버려진 음식물 등 먹이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비둘기 개체수가 해마다 5~10%가량 늘어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고 한다. 무리 지어 비둘기들은 공원은 물론 송충자·조형물 등에 배설물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까지 침범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둘기들이 쏟아 내는 배설물은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성분이 강산성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장 강산성이나 주택·차량의 부식 피해를 속출하고 있다. 비둘기의 깃털에서 나오는 각종 세균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사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 기준 10%를 넘어섰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게 치솟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1984년 이후 최저치인 38.7%에 달하는 등 ‘청년고용 절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취업난과 생활고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최근에는 집·인간관계·꿈·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 그리고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8포 세대’란 말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의 이번 투자 결정은 이처럼 취업난에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광주시도 좀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고용 확대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요즘 각 구청에는 비둘기 피해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에 비둘기를 틀어 심한 악취는 물론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퇴치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주민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각 구청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동물 보호 차원에서 생각하면 무턱대고 잡아 없앨 수도 없는 일어서 적극적인 퇴치 대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둘기의 개체수가 이대로 늘어난다면 얼마 가지 않아 광주 도심은 비둘기가 난감 배설물로 온통 뒤덮일 수 있다. 이미 보초 조수로서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주민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퇴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비둘기 먹이에 불인재를 섞어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지하다. 비둘기가 많이 무리 지어 있는 공원 등에서 먹이 주기를 원천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無 等 鼓

요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나라마다 돈이 없으니 문화재에 손을 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 베르사유 궁은 궁전 분관에서 90m밖에 떨어지지 않은 17세기 저택 3채를 호텔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민간업체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622억 원에서 올해 531억 원으로 줄면서 재정난에 처하게 된 것이 이유다.

‘호텔 오랑주리’라는 가치가 붙은 이 호텔에서 숙박객들은 300년 만에 처음으로 궁정 안에서 삼채원

문화재 세일

도 마시고 왕실 정원도 가닐 수 있게 된다. 베르사유 궁 대변인은 “세상에 이런 호텔은 없다”며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 역사의 상징이자 문화적 랜드마크로, 이 호텔에 묵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실 체험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문화재로 돈벌이에 나선 곳은 프랑스 뿐만이 아니다. 그리스·이탈리아·폴란드 등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문화재 세일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는 얼마 전 이오니아해의 6개 섬을 122억 원에 카타르 왕실에 팔았으며, 아

테네 도심 아크로폴리스의 유적 지대 부동산도 매물로 내놨다. 이탈리아도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와 케이트 홈스가 결혼식을 올려 유명해진 브라치아노의 오데스칼기 성을 비롯한 문화재급 부동산 50건을 경매로 팔아 7200억 원을 국가채무 면제에 쓰기도 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조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재 덕분에 ‘얕아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여 왔던 곳이다. 하지만, ‘한

그리고 ‘우선 먹기는 굶기’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동조

하면서 결국엔 조상이 남긴 문화재를 팔아 치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언제부턴가 온 천지에 부동산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언젠가 문화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정부는 대충금리를 낮춰 가며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고 있고, 투기꾼들은 프리미엄 율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깨지지 않는 꿈은 없다. 주택업계를 제치고 있다. 재정운용 방향이 건전한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kwangj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광고문의 062-227-9600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내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매 개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